

전기차산업 진흥·미세먼지 저감 5년간 4700억 투입 3만대 보급

전남도, e-모빌리티 활성화 보조금·충전소 등 확대키로

전남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도내 전기차 등차 산업의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 4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산으로 도내 생산 전기차 6000대를 포함해 모두 3만 대에 이르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7일 “오는 2023년까지 4771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3만 대, 충전소 6500대를 도민에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내에는

전기자동차가 2500대, 충전소는 2000대가 운용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및 이륜차 등은 총 보급 대수 대비 20%를 전남지역 생산 제품 구매를 목표로 정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금은 시군비 10%에서 20%까지 확대하고, 2020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1대당 도비보조금 3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남지역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지원해 매년 200대씩 지역 생산 제품으로 시·군 읍

면동 및 공공기관에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충전소 보급에도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의 50%를 지역 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사업량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1832대, 전기이륜차 392대, 전기화물차 114대다. 도 자체사업은 전기자동차 200대, 전기이륜차 200대, 충전소 100기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만4617대, 2020년 8960대를 폐차시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4개 기업과 810억원 투자협약...400여 명 일자리 기대

에너지·자동차 등 분야...평동3차산업단 등에 공장 이전·신축

광주시는 17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서광 등 14개 기업과 81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식에는 경기도 1개, 전북 1개, 전남 6개 등 관외기업 8개와 광주지역 6개 기업 등 14개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분야 삼환전기(유) 등 5개사 156억여 원 ▲자동차 분야 ㈜바다특장 1개사 102억여 원 ▲전자 분야 ㈜서광 등 3개사 289억여 원 ▲식품 분야 ㈜프레찬 1개사 232억여 원 ▲기타 ㈜에스.디.엠 등 4개사 232억여 원 등이다.

㈜서광은 장성에서 기계장비조립용 플

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150억원을 투자해 내년 1월 평동3차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다.

합평과 나주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삼환전기(유)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동3차 산업단지에 48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공장을 신축한다.

㈜보명전자는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부품의 실드스크린 인쇄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명품강소기업으로, 평동3차 산업단지에 114억원을 들여 사출공장을 신설한다.

㈜프레찬은 쌀누룩 발효소금과 누룩 발효김치 특허를 보유한 김치 제조기업이다. 평동3차 산업단지에 30억원을 투자해 납도김치를 생산, 세계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에스.디.엠 등 기업이 에너지 밸리산단, 하남산단, 첨단1·2·3산단에 입주한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4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준 기업인들이 계서 광주가 산업발도지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광주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 표시 사라진다

행안부 내년 10월부터 적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45년만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이래 앞 부분에 생년월일, 뒷 부분에 성별, 지역 번호 등을 포함한 총 13자리로 부여되고 있다.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

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성 요소들이다.

앞으로는 지역 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를 없앤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은 그간 논란이 컸다. 지금도 인터넷에

서 간단한 검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최초로 부여했다. 당시엔 지역 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였다. 1975년 현행 13자리로 개편한 이후 줄곧 유지됐다.

연합뉴스



방한 일정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7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에 회동 공개 제안했지만...비건, 응답 못받고 일본으로

스웨덴 한반도 특사와 오찬·연세대 비공개 특강 후 출국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7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비건 대표는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면서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김포공항에 나타난 비건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북한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빈실로 향했다.

1시간 뒤 귀빈실에서 혼자 나와 출국장

으로 향할 때도 비건 대표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만나고 관계기관을 방문했으며,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 특사와 오찬 회동을 한 모습이 일본 취재진에 포착됐다. 해슈테트 특사는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관련 중재 역할을 했으며, 수시로 북한을 방문해 외교 당국자들과도 회동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출국 직전 연세대에서 비공개 특강을 했으며, 특강을 마친 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에는 이 본부장이 동승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을 두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방문 기간 판문점 등에서의 북미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조짐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킬 카드로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비건 대표가 일본에 머무르는 19일까지도 북미 접촉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보다는 대립을 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5일 입국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또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했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일본에서 다카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러 대북제재 완화요구 결의안에 美 국무부 “시기상조” 부정적 입장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금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무부는 현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준수, 협상 복귀 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적(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도발 고조를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두차례에 걸쳐 ‘중대한 시험’에 나서는

등 ‘성탄절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도 분명했다. 앞서 방한 중인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 지명자는 한국시간으로 16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카운터파트를 향해 사실상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지만 아직 북한의 공식 응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미국의 이날 반응은 또한 ‘국제사회의 일치단결된 대응’을 들어 중국·러시아의 대북 공조 이탈 움직임에 경고장을 보낸 차원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웅동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총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포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원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땅 2238㎡ 전원주택 등 적합 7천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좋은 1억3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일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노동대 노인간장터)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 지하 205㎡ 매인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정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1억
- 동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재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원룸·나대지 등과 교환할,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경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